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요한 1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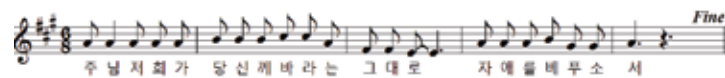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김옥순 수녀 作

[제1독서]사도 6,1-7

[화답송]시편 33(32),1-2,4-5,18-19
(◎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제2독서] 1베드 2,4-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복음] 요한 14,1-12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3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500] 평화의 하느님
 - 파견성가: [128]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¹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²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³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⁵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⁶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⁷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었다.” ⁸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⁹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¹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¹¹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¹²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You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there were not, would I have told you that I a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gain and take you to myself, so that where I am you also may be. Where I am going you know the way.” Thomas said to him, “Master,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how can we know the way?”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If you know me, then you will also know my Father.

From now on you do know him and have seen him.”

Philip said to him, “Master, show us the Father, and that will be enough for us.”

Jesus said to him, “Have I been with you for so long a time and you still do not know me, Philip? Whoever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Do you not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The words that I speak to you I do not speak on my own.

The Father who dwells in me is doing his works.

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or else, believe because of the works themselves.

Amen, amen, I say to you, whoever believes in me will do the works that I do, and will do greater ones than thes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묵상

초기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영원한 가치로 삼지 않은 초기 신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행복의 가치를 다른 눈으로 보게 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적인 약점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이내 불평을 터뜨렸는데, 믿는 이들도 팔이 안으로 굽는 인간적인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려고 일곱 부제를 뽑고 그들에게 식탁 봉사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영적 교회와 제도 교회의 양면성이 엿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공동체 질서를 유지할 사회적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영적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역사 속에서 제도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쓸모없는 돌맹이 같은 우리 존재를 하느님께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는 살아 있는 돌로 만드신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나약함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지만, 불신은 사람들을 편견과 오해의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려면, 내 인간적인 약점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겸손의 용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하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 · 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줄리아 크노프 글, 롤프 분제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에서 발췌되며, 매 주일 미사 후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 보좌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Q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은?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묻는다면, 대답은 제각각일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 즉 우리의 신앙을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담긴 성경 구절을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의 다음 구절을 꼽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 6,4-5)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조 이야기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이집트 탈출 이야기도 중요하다. 그 밖에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하느님 말씀이나 신앙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며 노래하는 시편 구절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십계명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다. 탈출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와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에서 십계명에 관해 전해 준다.

신약 성경에서는 산상 설교(마태 5-7장)와 관련한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하나씩 전해 주시는데,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때문이다. 산상 설교의 핵심은 ‘참행복’으로,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예를 들면 참행복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하고 가르친다. 이는 돈이 많은 부자가 행복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르다.

또한 ‘주님의 기도’ (마태 6,9-13; 루카 11,2-4)도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바쳐야 할 모든 기도 가운데 으뜸이다.

요한 복음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1장에 나오는 찬미가가 그렇다. 요한 복음사가는 이 찬미가에서 예수님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준다. 곧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으로서 이미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고 노래한다.

이 밖에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다.

그 이외 바오로 사도가 보낸 서간에서는 교회의 바른 모습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바치셨던 기도문(루카 1,46-55)도 매우 아름다워서 신앙인들이 즐겨 외운다. 이 기도문은 마리아의 노래, 즉 ‘마니피캇’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도문에는 온 이스라엘의 희망이 담겨 있다. 하느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마침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 주신 것을 기뻐했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당신이 잉태한 아기가 바로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다.

이 기도문의 이름 ‘마니피캇’은 라틴어로 ‘찬송하다’라는 뜻이다. 이 제목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루카 1,46)로 시작하는 기도문의 라틴어 첫 글자를 따온 것이다. 이토록 찬송하는 이유는 뒤에 적혀 있다. 하느님은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48-49)

“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 6,4-5)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모세 오경)까지 모두 613개 율법이 적혀 있다!

그 율법 규정들은 주로 하느님을 흠송하기, 사람들 간 올바르게 살아가기와 관련한다. 십계명은 이 많은 규정을 열 가지로 요약한 것이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모든 은총의 중재자, 긴 목의 성모

성모성월 5월에 하늘의 여왕을 더 없이 우아하게 묘사한 이탈리아의 화가 파르미자니노(Parmigianino 1503-1540)의 ‘긴 목의 성모 The Madonna with the Long Neck’는 꽃의 도시 피렌체의 우피지 미술관의 애장품이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부활시킨 메디치가문의 궁전을 개조한 우피지 미술관은 세계 최고의 르네상스 미술 컬렉션을 보유하는 예술적 문화적 상징이자 역사적 명소이다. 교회 제단화로 제작된 이 그림은 발표 당시 르네상스 천재들의 완벽함에 밀려 지나친 기교와 손재주를 부린 지루하고 퇴보한 그림이라는 경멸적인 평판을 얻는다. 그러나 후대의 재평가로 불명예스런 오명을 벗고 인류 최고의 걸작들과 당당하게 견주며 ‘파르미자니노’관을 차지해 유감없이 명성을 발휘한다. 관람객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중간전상의 과도기미술인 마니에리슴(Manierismo) 양식의 대표적인 걸작에서 감각적이고 세련된 성모에게 매혹당한다.

파르미자니노는 백조처럼 늘인 긴 목의 성모를 압도적 비율의 거대한 여인으로 화면 전면에 부각시킨다. 성모의 인체는 비정상적인 10등신으로 늘리고 엉덩이 부분은 과장하여 풍만하게 부풀린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타원형의 얼굴과 발 그리고 왼쪽 가슴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기형적으로 길고 가늘다. 진주로 장식한 섬세한 곱슬머리와 고급스러운 의상의, 이상하게 변형된 신체 비율의 아름다운 성모는 여유로움을 지나 방만해 보일 만큼 개방적인 자태이다. 두 개의 겹쳐진 쿠션에 오른발은 올려놓은 채 안고 있는 다소 큰 아기는 당장 무릎에서 미끄러질 듯 불안하다. 오른쪽 비좁은 구석에 몰려있는 6명의 천사는 성모의 반절 크기이고, 반대편 구석에 성서를 펼쳐 든 길게 늘린 예로니모 성인은 성모 무릎에도 미치지 못한다.

관람객은 기둥 뒤의 여백, 성인 옆의 발목, 아기의 빈약한 머리카락, 성모 오른쪽 허리의 흐릿한 천사의 윤곽선에 의문을 갖는다. 그는 이 그림의 계약 마감 기한 위반으로 감옥에 갇히고, 37세의 나이로 요절하며 명백한 미완성으로 남긴다.

중세의 성가 텍스트에서 영감을 얻은 파르미자니노는 대담한 조형적 구성과 섬세한 빛의 움직임으로 서정적 색상의 종교화를 탄생시킨다. 성모의 얼굴은 전통적으로 교회의 알레고리로



<목이 긴 성모>, 파르미자니노, 유채화, 216×132cm, 1535-1540

인용되며, 성모의 상아 빛 목과 닮은 꼴인 배경의 대리석 기둥은 교회의 기둥으로 해석된다. 성모의 소매 자락을 움켜 쥔 아기 예수와 냉담한 표정을 가장한 성모의 감춰진 눈빛에서 형성되는 친밀한 교감은 숨길 수 없다.

아기 예수의 늘어진 팔과 감은 눈은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을 암시한다. 성모의 체형과 비슷한 형태의 천사가 든 화병에 그려진 희미한 붉은색 십자가는 다가올 십자가 처형의 간접적 언급으로 천사들은 숭배와 애도를 동시에 표한다. 그는 대상의 보편적 관찰보다는 화가의 정신적 이념을 강조한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 미학의 영향으로 독창적 화면을 창조했다. 관람객은 변형된 비율의 비논리적 기형적 화면에서 미술의 완벽한 해결책이었던 고전적 비례와 완전한 균형의 파괴를 본다.

성모에 대한 찬미는 예술가들의 영원한 주제로, 파르미자니노는 독특한 개성으로 미술사에 남는 불멸의 명작을

남겼다. 비현실적 묘사와 불명료한 구도를 강조한 불안정한 화면은 당대의 불안한 시대적 갈등과 상황의 반영이다. 1517년의 종교개혁과 1527년 로마의 약탈(Sack of Rome)로 교황청을 향한 위협과 무차별 공격은 정신적 위기를 야기했고 이는 곧 예술적 위기로 기묘하고 불분명한 형식의 매너리즘이 탄생한다. 관람객은 병적인 정서 불안과 위기에서 파생된 긴장감 넘치는 기묘한 화면의 고고한 기품과 정교한 관능이 공존하는 긴 목의 성모에게 빠져든다. 파르미자니노는 그림의 아름다운 여인을 향한 시각적 열광보다는, 하느님을 향한 모범적 삶과 지극한 신심이 자아내는 초월적이고 고귀한 성모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성모성월은 중세인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 장미 정원을 장식해 성모님께 봉헌하는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성모님은 공경의 대상으로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성모님을 ‘모든 은총의 중재자’로 공식 인준하였고, 1921년 공식적으로 5월을 성모 성월로 확정했다.

계절의 여왕인 5월, 성모님의 숭고한 사랑을 기도와 찬미로 마음속 깊이 찬양해 보자.

Congratulations

St. Paul Chung 3rd to 8th grade students make their First Communion



The First Holy Communicants

Elizabeth Ahn, Sophia Cho, Kaith Frobish, Mary Kang, Peter Choi, Sydney Jeon, Ian Tejung Kang, Albert Kim, Jake Kim, Julie Kim, Esther J. Lee, Olivia Yunnah Lee, Sarah Sieun Lee, Paul Jin Lim, Ethan Om, Dainna Park, Injoon Park, Jenny Park, Rachel Park, Alice Shin, Eric Park, Gianna Heri Kang, Jake Lee, Michelle Ahn, William Choi, Richard Yoo and Olive Lee.

Twenty-seven children received their First Communion on Sunday, May 7th, at St. Paul Chung. The children prepared for the sacrament under the direction of their catechists Rosaria Shin and Andy Oh for last six months.

During the mass, Communicants walk to the altar to receive the round, thin Eucharistic what Roman Catholics believe to be the "Body of Christ" when consecrated on the altar by Fr. Seong for the first time.



Holy Eucharist, the Lord Jesus' Paschal Mystery, the Central Axis, and the Heart of Holy Catholic Church!

Congratulations to All St. Paul Chung "First Communion" Students Year 2017!

You are All Marvelous and Beautiful "First Communion" students - profoundly charming, loving, knowledgeable New Youth Apostles, who will witness Jesus and His Holy Church.

Yes, please Do Remember, What You Have Promised to the Church, during the First Holy Communion Mass, with Fr. Seong:

- **Yes, I will dedicate.....** 네, 봉헌하겠습니다...
- **Yes, I will endeavor....** 네, 노력하겠습니다...
- **Yes, I will pray.....** 네, 기도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Always as you walk with Your Faith!
Special "Thanks" to Father Seong, for the Interview, Baptism, First Reconciliation, and his Love....

-Wed. Sacrament Class, *Rosaria Shin*

ANNOUNCEMENT

1. 2017 Sunday School Town Hall Meeting

- When : May 19(Fri), 7pm to 9pm
- Where : Hasang #110

2. Jr. High Activity

- When : May 20(Sat), 2pm to 5 pm
- Where : Hasang #110
- More information will be sent out via email

3. No Sunday School Class

- May 21(Sun) : Student Mass at 10am at the gym, students & teachers only
- May 28 : Memorial Day Holiday



제1회 K O C 주관 장학기금 마련 친선 골프대회

K of C (단장 김명학 버나드) 주관 제1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지난 7일(일) 오후 South Riding Golf Club 에서 개최되었다. 다소 쌀쌀했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골프대회 참가자들은 열띤 경기를 펼쳤으며 대회 후에는 본당에서 이루어진 만찬 및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뜻깊은 하루를 함께 했다.

K of C 회원들과 대회 봉사자들은 “참가자들이 즐겁게 경기를 치르고 잘 마무리되는 것을 보며 봉사한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며 “이번 골프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후원자들과 참가자들, 직접 경기에 참가한 백인현 주임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총 53명의 형제, 자매들이 후원자로 나섰으며 후원금은 초등부(15명 이상)와 중/고등부(남,여학생 각각 1명)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 버나드 단장, 백인현 주임신부, 정종교 우승자

수상자 명단

Champion | 정종교

A조 : 박모세(우승), 김남식(준우승)

B조 : 하재호(우승), 한동희(준우승), 브라이언 Lee(장려상)

시니어 : 김판열(우승), 유재남(준우승)

여성부 : 이정숙(우승), 강아네스(준우승)

근접상 : 장미경 장타상 : 김홍민

후원자 명단

강윤주(안드레아), 김광원, 김돈현(미카엘), 강상욱, 김동표(로므알드), 김명철(스테파노), 고대현, 김남식(다윗), 김우기(안드레아), 권태완(빈센트), 김명곤(바오로), 김정수(이나시오), 레이첼김(아네스), 김인태(골롬바노), 권미경(모니카) 경희발효홍삼, 꾸르실로, 마니안젤리핸드벨, 민자동차정비, 바오로회, 박원균, 베스트사인, 이재인, 이용희(그레고리오), 이인표(윤일요한), 이경태(요셉), 이영준 이재원, 이혁찬, 유스티노한, 윤봉근(도미니코), 워싱턴메트로골프, 요한회, 인기만(요셉), 완다박, 지경수(요한), 정재민(미카엘), 전양수(요셉), 전례부, 최태형, 최용태, 최평란(데레사), 청소년사도회, 청사포/시루와 죽이자기, 최상규, 허진(세바스찬), 하상희, 한동석, 황복성(루가), 황원문, 팔도골프, Clyde's Restaurant, General Pest Control



▲ A조 우승자 박모세 형제와 함께



▲ B조 우승자 하재호 안토니오 형제와 함께

▶ 구역임원 교육

5월 구역임원 교육이 지난 7일 (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었다. 34명의 구역봉사자와 구역부 임원들은 이 달의 주제인 요한 복음 (14, 1-12) 말씀, ‘우리가 갈 곳’이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쉽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서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자”며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임” 강조했다. 기타 사항으로 2017년 장터 한마당 웃놀이 대진 추첨과 건의사항 접수 그리고 7월 봉사자 피정 일정 등을 토의했다.



※ 구인: 페인트 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분 구합니다. 문의: 신 데레사 (703) 774-8594

2017년 제9회 미 동중부 성령대회

성령은사 쇄신운동 50주년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너희 안에 나의 거처를 마련하여라.”

(독시록 21,3)

강 사 : 김 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팔로티 수도회)

일 시 : 5월 28일(주일) 1:30 pm ~ 9:00 pm
29일(월) 9:00 am ~ 5:00 pm
(Memorial weekend)

장 소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회 비 : \$30.00 (5월 14일까지) / \$40.00 (15일 이후)

문 의 : 미 동중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443-717-0886)

신 청 : 각 본당 성령기도회장

1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과 함께 하는 2017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

- 일시: 5월 21일(일) 10시 미사 후
- 장소: 본당 뒤 주차장
- 각 구역별 음식 판매와 율놀이 및 흥겨운 게임 등이 진행될 장터 한마당에 모두 참석하시어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불우 이웃 돕기 야드 세일

- 불우 이웃 돕기 일환으로 야드세일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5월 14일(일), 성당 주차장

3 단체장 회의

- 일시: 5월 14일(일) 오전 11:30(B-3,4)

4 꼬미시옹 월례회의

- 일시: 5월 14일(일) 오후 1시(B-3,4)

5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5월 28일(일) 오전 11:40 (하상관 B-4,5)
- 장터 한마당 행사로 1주일 연기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사도임원 회의

- 일시: 5월 19일(금) 오후 8시(B-1,2)

7 하상회/안나회 모임

- 일시: 5월 21일(일), 친교의 장터

8 바오로 정기총회

- 일시: 5월 21일(일) 오후 6시(친교실)
- 문의: 이성근 바오로(703) 703-1932

9 선교 방송 시간 변경

- 본당에서 방송하는 방송 시간이 6월 1일(목)부터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채널은 변동 없음)
- 목요일 오후 5시-변동없음
- 금요일 저녁 11시에서 저녁 8시로 변동
- 일요일 자정에서 오전 6시로 변동

10 울프레아 정기모임

- 일시: 5월 26일(금) 오후 8시(A-1,2,3)
- 새로 탄생한 꾸르실리스파의 나눔이 있습니다.

11 꾸르실리오 지도 신부님배 골프대회

- 일시: 6월 4일(일) 오후 1시
- 대상: 전 신자
- 장소: Red Gate Golf Course
- 문의: 박노덕 (703) 608-9664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4일(일)	부활 제5주일	Mother's Day, 야드 세일, 단체장회의(11:30, B-3,4), 꼬미시옹 월례회의(오후 1시, B-3,4)
15일(월)	부활 제5주간	아침미사(오전 6:00, 성당)
16일(화)	부활 제5주간	하상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친교실), 레지오마리아에(오후 8시, 친교실), 성령기도회(오후 8시, 도서관)
17일(수)	부활 제5주간	레지오 마리아에(오전 9:30, 친교실)
18일(목)	부활 제5주간	아침미사(오전 6:00, 성당)
19일(금)	부활 제5주간	하상성인학교(오전 9:00, 하상관, 친교실), 연례 주일학교 간담회(오후 7시, 하상관 #110), 사도임원회의(오후 8시, B-1,2), CLC(오후 8시)
20일(토)	부활 제5주간	아침미사(오전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에(오전 9:30, 친교실), 하상한국학교(오전 9:30, 하상관), 다민족 음악회(오후 7시, Bishop Ireton High School)
21일(일)	부활 제6주일	장터한마당(오전 11:20-오후 2시, 본당 뒤 주차장), 주일학교 없음, 학생미사(오전 10시, 친교실), 바오로 정기총회(오후 6시, 친교실)

12 하상한국학교 종업식 및 학예회

- 일시: 5월 20일(토) 오전 11시
- 장소: 하상관 체육관
- 하상 한국학교에서는 2016년-2017년도 정규학기 종업식 및 학예회를 개최하니 많은 학부모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3 제9회 미동중부 성령대회

- 일시: 5월 28일(일) 오후 1:30 - 오후 9시
5월 29일(월) 오전 9:30 - 오후 5시
- 장소: 워싱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신청비: 5월 14일까지: \$30 / 15일 이후 \$40 (2식 식사 포함)
- 버스운행 - 선착순/ 노약자 우선
- 문의: 안진이 제물지아 (703) 216-5792

14 알링턴 교구 다민족 공동체 음악회

- 음악회 일시: 5월 20일(토) 오후 7시
- 장소: Bishop Ireton High School (201 Cambridge Rd, Alexandria)
- 여러 나라 언어로 부르는 다민족 음악회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5 5월 성물부 세일

-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물부에서 20% 세일하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16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 주문 접수

- 신청: 성모회, 장에디타 (703) 973-7159

17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미사

- 일시: 5월 29일(월) 오전 11시/ Fr. John M. O'Donohue.
- 장소: Fairfax Memorial Park

18 이스라엘 성지순례(프란치스코회 주최)

-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12월 10일(일)까지(선착순 10명)
- 비용: \$3,900(Deposit \$1,000)
- 인솔 신부님: 조기영(안드레아) 프란치스코 수도회
- 문의: 한기남 데레사 (703)425-9445, (703)674-6081

19 주일학교 휴교

- 5월 21일 주일학교 휴교
- 5월 21일 학생미사: 오전 10시, 체육관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들만 참석합니다. 가족미사를 보실 분들은 본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5월 28일 주일학교 휴교(메모리얼 데이)



* 2차 헌금 *

이번 주일은 부활파 선교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부활 제5주일: 달출 4-9 / 마태 17-18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5월 18일 (목) 오후 5:00-6:00
5월 19일 (금) 저녁 11:00-12:00
5월 20일 (일) 자정 12:00-1:00

- 뉴스: 가톨릭 뉴스 종합
- 특강: 서양문화의 어머니 그리스도교, 박승찬 교수(11) 하느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5월 7일 (부활 제4주일)

주일헌금	\$ 8,152.13
교무금	\$ 11,130.00
교무금(신용카드)	\$ 4,280.00
특별헌금	\$ 1,040.00
2차 헌금	\$ 0.00
합계	\$ 24,602.13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황님의 5월 기도 지향

선교: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본받아 화해와 정의와 평화를 예언자적으로 증언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균(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김동분(아가타), 김경호(사도요한), 오인균(바오로), 김영식(토마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자노), 이슬(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복창(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임철민(요셉),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칼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마사지와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철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마태오 홍 종합보험 메디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데크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중미반점 애난데일 예촌 옆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주택, 사업체 703-649-211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웨딩사진 전문 www.soowonlee.com 이 클라우디아 703-785-0900	Folds & Crafts 종이접기, 한지공예(성인,어린이) 강사반, 취미반, 작품판매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은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토요일 저녁	05:00 PM (청년미사)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